

'복수여신' 유진 vs '국민악녀' 김소연

(오윤희 역)

(천서진 역)

오윤희, 용의주도하고 스케일 커져 천서진, 더 악독해진 눈빛과 악행 엄기준 "악랄함, 시즌1은 애교 수준"



유진(왼쪽)과 김소연을 주축으로 해 19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SBS '펜트하우스'가 더 강력한 반작용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사진제공 | SBS

한 달여 만에 다시 펼쳐진 '펜트하우스'의 세상은 더 세지고, 훨씬 강력해졌다. 19일부터 방송한 SBS '펜트하우스'가 주인공인 김소연과 유진을 중심으로 피 튀기는 복수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단숨에 안방극장의 최대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시즌1의 2년 뒤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는 시즌의 화제성과 시청률까지 가뿐히 뛰어넘으며 시청자들을 드라마로 끌어들이었다.

김소연과 유진은 시즌1에서 사랑한 설정으로 잠시 모습을 감추고 다른 주연이자 '구심점'인 이지아를 대신해 예측불허의 반전까지 이뤄내고 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더 독해졌고 여기에 특유의 빠른 전개와 수위 높은 장면들로 꽂 채운 덕분에 드라마는 방송 2회 만인 20일 20.4%(이하 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동시간대 경쟁작으로 꼽힌 신하균·여진구 주연의 JTBC '과물'(3.9%), 20일 각각 문을 연 송중기의 tvN '빈센조'(7.7%), 이서진의 OCN '타임즈'(1.6%)도 가볍게 제쳤다.

●유진...제대로 '흑화'한 김소연 저격수

지난 시즌에서 종종 보였던 허술함은 없다. 이번엔 제대로 '무서운 악녀'로 변신했다. 확장시절 성악 트로피를 빼앗고, 친자매처럼 지낸 이지아를 죽인 김소연에 복수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스케일

도 한껏 커졌다. 헬리콥터를 동원해 김소연과 엄기준의 약혼식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미국에서 성대 수술까지 받았다는 설정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자연스럽게 시청자 사이에서 시즌1과 비교해 가장 변화한 인물로도 꼽히고 있다. 19일 제작발표회를 통해서도 "전 시

즌보다 내면이 단단해지면서 한층 더 두도면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복수하는 과정에서 다채로운 재미를 끌어내기도 한다.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장 결혼한 김소연의 전 남편 윤종훈과 은근한 로맨스가 대표적이다. 김소연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 앞에

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다가 단둘이 있으면 수줍은 모습으로 돌변한다. 격정적인 불륜이 줄을 잇는 가운데 뜻밖엔 설렘이 오히려 돋보인다는 평가다. 덕분에 시청자들로부터 캐릭터 이름을 딴 '윤윤(오윤희·하윤철) 커플'이란 별명까지 얻을 만큼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다.

●김소연... "국민악녀"는 내 것!

시즌1에서 모든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국민악녀'는 그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헤라클레스의 최고 권력자 엄기준을 차지한 이후 오른 '여왕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그린다. 다시 나타난 유진을 향한 살벌한 눈빛이 여전하다. "시즌1의 화려함을 유지하면서도 무게가 더해진 2년 뒤 모습을 고민"해 천서진의 캐릭터를 완성해갈 예정이다.

유진과의 경쟁뿐 아니다. 고3이 된 딸 최예빈의 치열한 대입 준비 등이 기다리고 있다. 벌써 위기는 시작됐다. 딸의 개인교사로 처음 등장한 안연홍과 모한 대립도 궁금증을 자극시킨다. 불륜으로 결혼까지 한 엄기준과 갈등까지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엄기준은 이에 "시즌1의 악행은 애교 수준이다. 시작부터 전 시즌을 능가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 남편인 연기자 이상우, 유진과 같은 그룹 S.E.S 출신이자 김소연과도 절친한 가수 바다 등이 특별출연해 화제물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상우는 성대결절로 공연을 마친 김소연을 도발하는 신문사 기자 역할로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서울패밀리 멤버 유노, 편도암 투병중 별세



유노

혼성듀오 서울패밀리의 멤버 유노(본명 김윤호)가 세상과 영원히 작별했다. 편도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고인은 63세의 일기로 19일 별세했다. 발인식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지는 경기도 포천시 광릉추모공원이자. 유노의 아내이자 서울패밀리의 멤버인 김승미는 지난달 KBS 1TV '우리말 겨루기'에 출연해 "남편이 현재 편도암 4기"라며 "강한 사람이니 얼른 완쾌할 것"이라고 유노의 투병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유노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 1990년 서울패밀리에 합류했다.

갯세븐, 디지털 싱글 '앙코르' 깜짝 발표



갯세븐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뿔뿔이 흩어진 7인조 그룹 갯세븐이 깜짝 발표한 디지털 싱글 '앙코르'의 인기가 뜨겁다. 21일 유통사 워너뮤직코리아에 따르면 '앙코르'는 미국을 포함해 스페인, 브라질, 칠레, 프랑스, 멕시코, 싱가포르 등 세계 42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미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케이팝 그룹 중 처음이다. 팬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팬 송'인 이곡은 발매 첫날 아이튠즈 '월드 와이드 송 차트' 1위도 기록했다. 2014년 데뷔한 갯세븐은 멤버 전원이 지난달 JYP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각기 다른 소속사로 향했다.

조정식 SBS아나운서 웨딩마치



조정식

조정식 SBS 아나운서가 21일 결혼했다. 조 아나운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8세 연하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백년 가약을 맺었다. 조 아나운서는 지난달 개인 SNS를 통해 "(예비신부가) 현명하고 착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며 결혼 소식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조 아나운서는 2013년 1900 대 1 경쟁률을 뚫고 S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활동 중이다. 그룹 주얼리 출신 조민아도 박정아·서인영 등의 축하 속에서 20일 웨딩마치를 올렸다. 조민아는 21일 개인 SNS에 "공정하든 기운 나누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안방극장 사로잡은 '뉴페이스' 전여빈·이주영

동시간대 '빈센조' '타임'으로 경쟁 송중기-이서진 파트너 존재감 뽐내



전여빈

이주영

배우 전여빈과 이주영이 안방극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두 사람은 20일 나란히 첫 방송한 tvN '빈센조'와 OCN '타임즈'의 여주인공으로 나서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스크린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두 사람이 각각 송중기, 이서진의 파트너로 만나 강렬한 존재

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여빈은 '빈센조'에서 코믹함으로 승부를 걸었다. 극중 송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이른바 '똥죽' 충만한 변호사 역

을 맡았다. 허세 넘치고 거들먹거리는 말투와 안하무인의 행동으로 웃음 요소로서 특독히 활약한다. 조지폭력배에 협박을 당하면서 "한 번만 더 건들면 '깡깡' 제대로 물게 해준다"며 먹살을 잡는 식이다.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류스타 송중기에게 밀리지 않는 독특한 개성을 뽐냈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11개의 신인상을 안긴 2018년 주연 영화 '죄 많은 소녀' 속 여주인공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확연한 변화만큼 '빈센조'가 "도전 그 자체"이기도 하다. 송중기는 "제가 그랬듯 시청자 분들 또한 '엄청난 배우가 나왔구나' '느낌 것'이라고 상대

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주영의 변신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작년 JTBC '이태원 클라쓰', 영화 '야구소년' 등에서 보여준 중성적인 매력 대신 방송사 보도국 기자로서 푹 부러진 면모를 뽐낸다. 5년 전 신문사 기자인 이서진과 우연히 전화로 연결되면서 아버지이자 대통령인 김영철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스크린에서는 2019년 영화 '메기'로 주연 데뷔를 했지만, 드라마는 이번이 첫 주인공이다. 시간이동 요소에 정지 드라마의 특성을 뒤섞은 장르물에도 새롭게 도전한다. 온통 낯선 환경이지만 이야기를 안정적으로 이끈다는 호평을 얻는 데 성공했다. 유지혜 기자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리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성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한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곡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2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최영민 010-4741-7008
● 초안고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규 010-8029-0059 / 임용환 010-3742-593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0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덕 010-6258-3510 / 오영숙 010-9804-3424
● 인천 박준표 010-3227-0933 / 우만 홍원표 010-6717-1719 / 서동원 010-3489-4190 / 김보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허찬석 010-4707-2659
● 판문도 010-5177-9479 ● 제주 정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최만드래미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리영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함베르도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실 010-6453-6952 ● 홍익 공동육아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위이 미니나 010-8763-8742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인류의 구세주
 21세기 제2의 석유
 K-biz, K-pay, K-platform
 성경기부경제학
 '자본공유앱APP'
 선착순 자동결제 이미지부 품앗이게

하이우분투(주)
1644-6733